차이나 마켓 워치

CHINA Market Watch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전화 : 86-10-6505-2671/3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1~10월 서비스 수출입 전년 동기대비 17.2% 증가

■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~10월 서비스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7.2% 증가한 4조 9,186억 위안(약 909조원)이며, 이 중 수출은 18.1% 증가한 2조 3,582억 위안(약 436조원), 수입은 16.4% 증가한 2조 5,604억 위안(약 473조원)으로 집계됨

• 지식집약형 서비스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0.3% 증가한 2조 478억 위안(약 378조원), 이 중 수출은 14.3% 증가한 1조 1,499억 위안(약 212조원), 수입은 5.6% 증가한 8,979억 위안(약 166조원)임

-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업종은 지재권 사용료 서비스, 컴퓨터·IT 서비스로 증가율이 각각 17.3%, 16.3%이며,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업종은 보험 서비스로 증가율이 57.1%에 달함

• 관광 서비스 교역액은 9.1% 증가한 6,891억 위안(약 127조원)으로 증가세를 유지함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12/02/content_25952273.htm

2 中, 1~10월 경공업 기업 이윤총액 9.8% 증가

■ 중국 경공업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~10월 규모이상(*연매출 2,000만 위안 이상) 경공업 기업의 매출은 6.7% 증가한 19조 3,700억 위안(약 3,599조원), 이윤 총액은 9.8% 증가한 1조 1,843억 위안(약 224조원)으로 집계됨

• 1~10월 경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.6%로 제조업의 증가율을 0.2%p 상회하였고, 배터리, 스쿠터, 일용화학품 등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0%를 초과함

- 경공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~10월 제지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투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, 이 중 피혁제품, 문화·스포츠·오락용품, 목재가공제품 등 업종에 대한 투자증가율은 20% 이상에 달했음

자료원 : 인민일보

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212/05/t20221205_38268631.shtml

3 中, 1~10월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부가가치 9.5% 증가

■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해 1~10월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며, 기업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고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

- 올해 1~10월 규모이상(*연매출 2,000만 위안 이상) 전자통신기기 제조기업의 전년 동기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9.5%이며 공업, 첨단기술 제조업의 증가율을 각각 5.5%p, 0.8%p 상회함. 전자통신제품 제조기업 매출은 8.4% 증가한 12조 4,500억 위안(약 2,294조 원)이며, 전자정보 제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는 20.8% 증가세를 보였음

- 1~10월 휴대폰 생산량은 3.5% 감소한 13억 대, 이 중 스마트폰 출하량은 2.2% 감소한 9억 8,800만 대임. 마이크로컴퓨터 설비 생산량은 8.8% 감소한 3억 5,100만 대, 집적회로 생산량은 12.3% 감소한 2,675억 개로 집계됨

-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~10월 누계 노트북 수출량은 20.8% 감소한 1억 4,300만 대, 휴대폰 수출량은 10.2% 감소한 6억 9,000만 대, 집적회로 수출량은 10.8% 감소한 2,304억 개임

자료원 : 증권일보

http://www.zqrb.cn/finance/hongguanjingji/2022-11-30/A1669790235830.html

4 中, 1~10월 인터넷 기업 매출 하락폭 감소

■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해 1~10월 규모이상(*연매출 2,000만 위안 이상) 인터넷 관련 서비스 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0.8% 하락한 1조 2,235억 위안(약 226조원)으로 하락폭이 축소하였음

-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10.4% 증가한 637억 위안(약 12조 원)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회복함

- 정보서비스(뉴스, 검색, 소셜미디어, 게임, 뮤직·동영상 등) 위주의 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.9% 증가하였고, 생활서비스(생활서비스, 렌트카·콜택시, 관광·교통, 금융서비스, 자동차, 주택 임대 등) 위주 플랫폼 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7.8% 감소하였음

- 반면 인터넷 판매 서비스(벌크상품, 농·부산품, 종합 전자상거래, 의료용품, 택배 등)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동기대비 16.3% 증가율을 달성함

자료원 : 증권일보망
http://www.zqrb.cn/finance/hongguanjingji/2022-11-30/A1669791849836.html

5 中, 1~10월 사회물류 총액 3.6% 증가

■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1~10월 중국의 사회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3.6% 증가한 275조 위안(약 5경 674조원)이며, 3분기부터 물류 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였음

* 사회물류총액은 공업품, 농산품, 수입화물, 재생자원 및 우정물류의 합계로 특정 기간 동안 사회물류서비스를 통해 고객(최종사용자)에게 배송된 전체 상품의 가치 총액을 의미

- 물류기업 매출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5.8% 증가한 10조 3,000억 위안(약 1,898조 원)이며, 중점 물류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.0% 증가하였음

- 업계 관계자는 물류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류서비스 가격 하향 조정 및 경영비 증가로 중소 물류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
- 주목할 점은 물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로 1,000억 위안(약 18조 원) 규모의 교통물류 전문 재대출이 각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혁신·전용 신용대출 제품을 출시하여 물류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

자료원 : 증권일보
http://www.zqrb.cn/finance/hongguanjingji/2022-11-30/A1669739803758.html

6 中, 수출업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 적극 지원

■ 중국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기간 수출업체의 해외 주문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

- 11월 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'해외 경제무역 전시사업 첫 시범 프로젝트 비준 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'를 발표했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5건의 해외 전시 프로젝트가 정부의 비준을 받았음

- 상기 프로젝트는 독일, 미국 등 8개 국가의 방직품, 자동차부품, 스포츠용품, 전자제품, 소비재 등 분야를 망라하며, 기업 전시규모는 최소 100평방미터에서 최대 1만 평방미터임

- 올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, ATA 증명서(임시통관), 상사증명서 등 각종 증서는 전년 동기대비 4.5% 증가한 441만 건임. 금액기준 5대 무역협정은 중국-한국, 중국-아세안, 중국-호주, RCEP, 아태무역협정으로 전체의 90.5%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장쑤, 저장, 광둥, 산둥, 쓰촨 등지가 전체 혜택금액의 70.2%를 차지했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11/30/content_25951857.htm

7 톈진시, 1~10월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수출입 48.7% 성장

■ 톈진시 해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~10월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수출입 교역액이 전년 동기대비 48.7% 성장한 5,503억 위안(약 101조원)으로 집계됨

* 일대일로(一帶一路) : 중국 서부에서 중앙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"실크로드 경제 벨트"로, 현재 참여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40여 개 국가임

- 한 예로 톈진시 소재 '훙바오(红宝)케첩제품유한회사'의 경우 토고, 베냉, 가봉, 케냐, 탄자니아로 토마토케첩을 수출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록 수출이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았지만 금년도 해관 수출 지원정책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3% 증가세를 보였음

- 톈진시 해관은 일대일로 국가와의 무역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, 통관절차 간소화, 혁신적인 관리감독 방식 도입, 통관효율 제고 등의 통관 편리화 조치를 취하여 수출화물을 적시 선적하도록 지원함

자료원 : 북방망
http://news.enorth.com.cn/system/2022/11/30/053391210.shtml

8 中, 1~10월 화장품 소매판매액 2.8% 감소

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~10월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2.8% 감소한 3,084억 위안(약 57조원)으로 집계됨

- 정책 면에서는 올해 7월부터 '화장품 생산 품질관리규범'이 시행되면서 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기본요구를 제기했고 10월 1일부터 '화장품 전자등록증' 제도를 시행하여 화장품 출시를 가속화하였으며, 12월 1일부터 '화장품 생산 품질관리규범 검사요점 및 판정원칙'을 시행하여 '화장품 생산 품질관리규범'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였음

- 올해 에스티로더(상하이), 패왕(霸王), 왓슨스(상하이) 등 기업은 허위 광고 혹은 홍보를 진행하여 각각 238만 위안(약 4.4억원), 60만 위안(약 1.1억원), 6,540위안(약 122만원)의 벌금을 납부하였음

- 아이메이컨설팅은 2021년 중국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5% 성장한 4,553억 위안(약 84조원)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2023년 시장규모는 5,000억 위안(약 93조원)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

  - 한편 남성용 스킨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2021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3.8% 성장한 99억 위안(약 1.8조원), 2023년 시장규모는 160억 위안(약 3조원)으로 예상됨. 솽스이(11.11) 기간 티몰 통계에 따르면 남성용 립스틱, 노화방지 에센스, 바디스크럽 등 품목이 인기를 끌었음

- 최근 화장품 생산업체는 신원료 개발, 제품배합 업그레이드, 스마트 제조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음. 예를 들어 화시바이오(华熙生物)는 수십 종의 바이오 활성물질 원료를 개발하였으며, 히알루론산도 200가지 종류 및 규격을 개발하였음. 이 외 판매시점정보관리(POS), 가상 메이크업, 스마트 피부측정 등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음

자료원 : 아이메이컨설팅
https://www.shifair.com/informationDetails/62517.html

9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부 외국계 자동차공장 일시 가동 중단

■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외국계 자동차업체들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

- 11월 29일 이치폭스바겐(一汽大众)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청두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고, 창춘 공장도 부품 부족으로 생산라인 2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30%의 직원만 공장에 출근하도록 조치하였음

- 11월 30일 둥펑혼다(东风本田)는 우한의 완성차 공장 3곳 생산을 일시 중단함. 이 외 상용차 생산업체 이스즈(ISUZU)는 충칭의 트럭 및 엔진 공장을 폐쇄하였고 오토바이 생산업체 야마하(YAMAHA)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충칭 공장 조업을 중단하였음

자료원 : 봉황망, 넷이즈
https://auto.ifeng.com/qichezixun/20221129/1824229.shtml
https://www.163.com/dy/article/HNE9OCVV0511RIVP.html

10 中 하이난성,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적극 추진

■ 하이난성 상무청 관계자는 11월 27일 '하이난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추진 가속화' 관련 행사에서 최근 하이난성은 신소비를 적극 육성하고 소비상품의 품질 제고 등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

- 하이난 리다오 면세정책은 2011년 실시 후 조정을 거쳐 관광객의 연간 소비한도를 10만 위안(약 1,845만 원)으로 인상하고 면세품 종류는 45종으로 확대하여 그간 면세품 판매 총액은 1,000억 위안(약 18조 원) 이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44.6%에 달함

  - 올해는 하이난국제면세성과 왕푸징완닝(万宁)국제면세항 등 2개 면세점을 신규 오픈하여 면세점 경영면적이 배로 증가했으며, 10월 28일 하이난국제면세성 오픈 당일 11개 리다오 면세점에서 7억 위안(약 1,292억 원)의 매출을 달성하여 역대 신기록을 세웠음

- 7월 개최된 제2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에는 61개 국가와 지역 1,955개 기업의 2,800개 브랜드가 참가하였고 방문객은 28만 명으로 집계되었음. 현재 하이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1,500개에 이상으로 수입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플래그숍을 오픈하였음

- 하이난성은 향후에도 소비시장 육성할 계획이며, 구체적인 조치로는 △**소비 안정 추진** : 면세상품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신에너지차 소비를 지원하며,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. 요식 분야의 반조리식품 연구개발, 생산 및 온라인 판매를 확대 △**소비 활력 제고** : 라이브 이커머스, SNS 전자상거래, 회원제 서비스 등의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생활서비스를 제공 △**소비 촉진 도모** : 각종 관련전시회 개최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 등임

- 소비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최근 5년간 하이난성에서 유치한 외자규모가 지난 30년간 외자 사용액과 맞먹었으며, 2021년 화물 수출입은 전년 대비 57.7% 증가한 1,477억 위안(약 27조 원)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0.4%에 달했음

- 2021년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방문객은 8,100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98%에 달했으며 관광 수입은 1,384억 위안(약 26조 원)으로 2019년 대비 1/3 증가했음. 2021년 기준 관광객이 머무르는 기간은 평균 4일, 1인당 소비액은 4,800 위안(약 86만 원) 이상이며, 이 중 31%를 쇼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자료원 : 중국상보망

https://www.zgswcn.com/article/202211/202211291026331007.html